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콜롬비아 국민 투표에 있어서의 탈진실

마리아 페르난다 곤살레스

국립 콜롬비아 대학교 초빙 교수

원제와 출처: María Fernanda González, "La 'posverdad' en el plebiscito por la paz en Colombia", *Nueva Sociedad*, No. 269, mayo-junio de 2017, pp. 114-126.

핵심어: 카스트로-차베스주의,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후안 마누엘 산토스, 알바로 우리베, 콜롬비아

정치 분야에 있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도래는 의사소통의 진정한 혁명을 불러 일으켰다. 정보를 전달하고 유포하는 형식이 본질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선거 캠페인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알 수 있으며 후보들의 연설을 경청하고 선거 주역들의 변화 과정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는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의사소통 수단들이 지닌 힘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프랑스 일간지인 르 몽드지의 주필인 제라르 쿠르투와는 자신의 저서 『선거 운동에서의 정당들』에서 1965년 이후 총 9차례 실시된 프랑스 제 5공화국 대통

령 선거 기간 동안 유세에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의 진화를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¹⁾ 쿠르투와에 따르면, 최근 50년 동안 유권자들에 대한 지지호소 방식은 기술의 혁명과 더불어 진화하였다. 제 4공화국(1946-1958) 기간 동안의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 유포하기 위해 라디오를 이용한 반면, 제 5공화국 동안에는 샤를 드 골 장군부터 텔레비전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 변화는 1962년 대선부터 보통, 직접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 이후 대통령과 프랑스 국민들 간의 직접적 만남이라는 이정표를 기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는 텔레비전을 통한 메시지 전달 능력이 뛰어난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쿠르투와는 1974년 대선 당시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후보가 그의 소심한 성격과 유권자들과의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고 회고한다. 쿠르투와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무엇보다도 지스카르 데스탱의 경쟁자들은 제 4공화국 사람들이었고 라디오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데스탱은 제 5공화국의 아들이었고 텔레비전 세대 사람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코드를 조정하였다. 공식 선거 운동 시작 후 첫 번째 선거 방송에서 그는 책상에 앉아서 방송을 하는 대신 안락의자에 앉아서 방송을 하였다. 이것은 마치 프랑스인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첫 번째 선거 방송이 있는 지 3일 후에 있었던 두 번째 선거 방송은 매우 치밀하고 상세하게 만들어진 자신의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데 활애되었다. 그리고 이 방송은 다음과 같은 데스탱의 기탄없는 말로 끝을 맺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차가운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심의

1) G. Courtois, *Parties de campagne. La saga des élections présidentielles*, Perrin, Paris, 2017.

여지없이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²⁾

데스탱이 유권자들에게 던진 단순한 메시지와 그의 친숙한 연설은 그가 엘리제 궁에 입성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비록 텔레비전이 선거 유세에 있어서 위대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 10년간은 인터넷과 기술 혁명의 거대한 충격으로 인해 그 환경이 급변하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변화가 선거 수단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내용의 변화, 좀 더 복합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메시지가 지닌 진실성의 변화라는 사실이다.

정보의 대중화와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가져 온 커다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산하는 저질 내용에 대해 우려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대중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알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대중에 유포되는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 즉 옥스포드 사전이 2016년 올해의 낱말로 선정한 “탈진실”(posverdad)에 기인한다. 옥스포드 사전은 “탈진실”을 “여론 형성에 있어 객관적 사실보다는 감정과 개인적 신념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순간으로 정의한다.³⁾

영국과 미국에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경제 및 사회적 위기는 이 “탈진실”의 형식과 결부되었고, 이로부터 영국에서는 브렉시트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란 사건이 생겨난 것이다. 파리 아메리카 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제이슨 하신 교수는 르 몽드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대중들의 전통 언론 매체들에 대한 불신과 선거 유세에서 루머의 이용은 탈진실의 단순한

2) *ibid.*, p. 104.

3) Martin Le Gros, “Généalogie de la politique post-vérité” en *Philosophie Magazine* No. 106, 2/201, p. 18.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⁴⁾ 또한 그는 선거 참모들은 시민들이 실제 생각하는 것을 유포하기 보다는 “여론에 편승하여” 유권자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확인하였다.

런던에서부터 보고타까지

브렉시트의 결과와 불안을 조성하는 캠페인의 이용은 2016년 2월에 있던 평화 협정 비준을 위한 콜롬비아 국민 투표 결과의 전조였다. 평화 협정 체결 서명이 있기 몇 달 전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은 브렉시트가 가르쳐 준 교훈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미 진언을 한 바 있다. 7월 7일 콜롬비아 미래재단의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산토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FARC)과 최종적인 평화 협정 체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 협정이 곧 콜롬비아 국민들에 의해 승인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결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자문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들께서 이 협정에 찬성을 하는지 혹은 반대를 하는지가 아니라 이 주제가 지닌 중요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인들은 유럽 연합을 떠나는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직후에야 비로소 영국인들은 유럽 연합 탈퇴라는 주제에 대한 정보를 본격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하였

4) Valérie Segond, “La post-vérité a radicalement transformé les campagnes électorales” en *Le Monde*, 2/3/2017.

습니다.⁵⁾

산토스 대통령은 마치 교수처럼 영국에서 발생한 브렉시트라는 사건의 항적을 추적하면서 “우리는 국민 투표 후에서야 지속적인 전쟁이 가져 올 결과에 대해 인식할 것입니까? 우리는 타자가 우리 대신 결정하고 비극적인 무장 갈등을 우리에게 강요하도록 놓아 둘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⁶⁾

이 발언들은 산토스 대통령이 집권 후 맞닥뜨린 가장 어려운 순간들 중 하나의 전조가 되었다. 국민 투표 결과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단지 58,000표라는 근소한 차로 평화 협정 비준 반대 진영이 승리를 거두었다.⁷⁾ 투표 직후 이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초기 분석들은 숨은 표들이 다양한 여론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치 분석가들은 또한 대통령의 의사소통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받아 들여졌고 국민과 함께 하지 않는 모습이 뜻밖의 선거 결과에 반영되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평화 협정 비준을 위한 국민 투표는 본질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투표였으며 집권 6년차에 접어 든 산토스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단정 지었다.

한편 선거 직후 곧바로 패배를 인정한 정부 측은 카리브 해 연안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매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이라고 하였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산토스 대통령의 지지 기반 중의 한 지역으로 간주되는 콜롬비아의 카리브 해 연안 지역 유권자들이 허리케인으로 인해 대규모로 투표소에 가지 못하였기에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덜 나왔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많은 환경적 원인들이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5) 2016년 7월 7일 콜롬비아 미래 재단 장학생 대상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 연설문.

6) Ibid.

7) 평화 협정 비준 반대표는 전체 투표자 수의 50.21%였고 찬성표는 49.78%였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들은 평화 협정 비준 반대 진영의 유세 총 책임자인 루이스 카를로스 벨레스(Luis Carlos Vélez)의 논쟁적이며 솔직한 진술 밑으로 묻혀 버렸다. 그는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반대 진영의 전략은 실제적으로는 정부의 논리와 주장에 맞서는 것인 만큼 부정적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우리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강력한 전염성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내가 안티오quia(Antioquia) 주의 아파르타도(Apartadó)를 방문했을 때 한 주의원이 내게 왜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게릴라 반군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느냐는 메시지와 함께 산토스 대통령과 반군 지도자인 티모첸코가 함께 찍은 사진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나는 이것을 나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 주 토요일에는 십삼만 명이, 그리고 곧 최대 육백만 명이 이 사진을 공유하였다. 파나마와 브라질 출신의 선거 전략가들은 우리에게 이번 국민 투표의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평화 협정에 대한 설명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⁸⁾

본 논문의 목적은 콜롬비아의 평화 협정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 유세 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발표, 유포된 비준 반대 진영의 주요 논거들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텍스트 통계학적 분석 방법에 기반 한 본 연구는 반대 진영의 담론에 사용된 언어의 특징을 알아보고, 반대 진영을 이끈 주요 지도자들에 의해 표현된 내용들을 상세히 연구하고, 그리고 국민투표에서의 내적, 외적 이념 전쟁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통계적으로 분석된 상당한 양의 텍스트들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에는 공식 성명서, 인터뷰 그

8) Juliana Ramírez, "El 'No' ha sido la campaña más barata y más efectiva de la historia" en *La República*, 5/10/2016.

리고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 간의 정전 협정이 비준된 6월 24일과 국민투표가 열린 10월 2일 사이에 나온 연설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들에 대한 분석은 평화 협정 비준 반대 진영의 메시지들이 논증과 조작을 혼합해 놓은 것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실 선거 유세에서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세계에서 어떤 특별한 역동성을 획득한다.

초기 논의: 배신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에 반대하는 주장들 중 가장 강력한 지지를 얻었으며 국민투표 전, 유세 기간 동안, 그리고 선거 운동 이후 전 대통령이자 현역 상원 의원인 알바로 우리베(Álvaro Uribe)가 단순한 방식으로 이용한 논거는 산토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베네수엘라와의 외교 관계가 복원되고 평화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후 우리베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 하던 당시의 정부 정책들과는 모든 면에서 반대되는 정책들을 산토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세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연설에서 우리베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관적이다. 즉 산토스 대통령이 민주적인 안보 정책을 폐기하면서 자신과 콜롬비아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다. 우리베 전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한 말들에는 다양한 시각과 어느 정도는 조작된 논거가 뒤섞여 있었다.

2016년 7월 유럽 순방 기간 동안 우리베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가장 가까운 노선을 걷고 있는 언론들과 대화를 하였다. 이 대화에서 우리베는 다음 선거에서 우리베주의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우리의 강령은 산토스 대통령이 고안해 시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카스트로-차베스주의자들인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에게 국가를 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확언하였다.⁹⁾ 그리고나서 그는 산토스 대통령이 추진하던 콜롬비아 무

장혁명군과의 평화 협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산토스 행정부는 콜롬비아 국민과 국제 사회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산토스 정권 하에서는 콜롬비아 국민을 위한 안보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은 모든 것을 테러리즘에 양보해 버렸고 콜롬비아의 사회, 경제 분야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국제 사회의 여론과 언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⁹⁾ 국내에서도 우리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현 정권은 민주적인 안보, 투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사회 통합 정책들을 유지하고 강화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현 정권은 분명 이 정책들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였습니다. 현 정권은 지금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데, 만약 평화 협정 비준 “반대” 진영이 국민 투표에서 승리한다면 이것은 협정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라는 과제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였다가 협박하고, 협박했다가 속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 협정에 반대해야 하며 헌법이 표명하고 있듯이 평화에 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¹¹⁾

이 연설에 대해 우리는 우선 과연 산토스 대통령이 이전 정권을 배신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우리베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였던 산토스 대통령은 우리베주의라는 옷을 입은 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10년 대선 1차 선거 유세가 시작되고 나서 며칠 후에 산토스 후보는 우리베 대통령과 자신이

9) Alberto D. Prieto, “Álvaro Uribe: ‘Santos es indulgente con el terrorismo e indiferente con el pueblo colombiano’”, entrevista en *OkDiario*, 8/7/2016.

10) Ibid.

11) Noticiero CM&, 22/8/2016.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숨기지 않았고 권좌에 오르기 위해 우리베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였다. 우리는 두 번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당시 우리베 대통령의 지지도가 72%에 달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토스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이 우리베 대통령의 후계 자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콜롬비아의 운명은 저 후안 마누엘 산토스에 있지 않습니다. 콜롬비아의 운명은 모든 우리베주의자들에게, 우리베 대통령께서 임기 중 과업을 정말 훌륭하게 수행하셨다고 믿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운명은 우리베 대통령께서 이루신 업적들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하나하나 증명하면서 뒤집어 버리려는 그런 위험을 원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대선 후보라는 사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베 대통령의 유산인 것입니다.¹²⁾

비록 2010년 대선은 우리베주의의 유산으로 각인되었지만 산토스 후보 측에서 제시한 정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들, 즉 교육, 특히 이중 언어 교육, 좌파를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을 포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써의 국가 통일체(Unidad Nacional)의 창설, “민주적 안전 보장”으로부터 “민주적 변형”으로의 진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베 정권 당시 단교하였던 베네수엘라와의 외교 관계 재개 등은 산토스주의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선 승리 연설에서 산토스 대통령 당선자는 이와 같은 자신의 정치적 노선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다.

12) M.F. González, *El poder de la palabra: Chávez, Uribe, Santos y las farc*, Semana Libros, Bogotá, 2016, p. 185에서 인용.

국민 여러분, 제 말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내 및 국외에 정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공통적이며 오직 우리가 콜롬비아라는 국가로 단결되어 행동할 때만 그들과 대적할 수 있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¹³⁾

베네수엘라와의 외교 관계 재개와 갈등의 종식은 산토스 대통령이 권좌에 오른 순간부터 그의 ‘항해 일지’였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저는 테러리즘에 대해 싸우기 위해 우리 군인들, 해병 대원들 그리고 경찰을 파견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미망인들과 자녀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있어 분명한 자세를 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인이기 이전에 외교관이었기 때문입니다.¹⁴⁾

우리는 프랑스 사회주의자인 조르주 클레망소의 핵심 주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오직 비이성적이고 판단력이 부족한 인간들만이 결코 자신의 주장을 바꾸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는 정치 분야에 있어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나 프랑스의 프랑수와 미테랑 대통령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원래 이데올로기를 버려야 했고 정치적 프로그램을 바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처칠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정당을 바꿨다. 프랑스 좌파의 수장으로서 공화국 대통령에 오른 미테랑은 취임 2년 후 당시 심각했던

13) 같은 책 p. 188에서 인용.

14) 같은 책 p. 190에서 인용.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진보적 경제 정책을 버리고 긴축 정책을 실시하였다.

비록 산토스 대통령은 자기 고유의 정치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권좌에 올랐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그를 전임자인 우리베를 배신한 정치인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 평화 및 사회 분야에서의 발전과 같은 산토스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이룬 업적들은 민주중도당(Centro Democrático)의 흑색선전에 의해 폄훼되고 있다.

정부의 불완전한 평화에 대한 주장

산토스 대통령은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과 체결한 평화 협정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대자들은 대통령이 자신이 주도한 협정을 최고의 협정으로 여긴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협정 체결에 참가했던 협상 대표들이나 산토스 대통령 공히 연설을 통해 완벽한 협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평화 협정을 위한 협상이 열렸던 쿠바의 아바나에서 협상 대표들은 가능한 최고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의 협상 대표단 단장이었던 움베르토 데 라 카예(Umberto de la Calle)는 “평화 협정문에 서명을 하는 것은 텅 빈 공간으로 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비준한 평화 협정은 완벽한 협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¹⁵⁾ 그리고 다음과 같이 첨언하였다.

우리는 콜롬비아를 위해 최고의 평화 협정에 도달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아바나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측과의 협상에서 도출한 결과에 대해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편향

15) Juan Gabriel Vásquez, “Ingreso de FARC en política exigirá más a los partidos: De la Calle” en *El Tiempo*, 23/8/2016.

되지 않은 중립적 시각으로 알리기 위해 제가 교수법의 마라톤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¹⁶⁾

한편 산토스 대통령은 다양한 연설과 성명을 통해 협상이란 반드시 대조되는 시각의 상호 교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평화의 과정은 불완전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저는 평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는 최고의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균형점에 우리가 실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¹⁷⁾

평화 협정 비준 반대 진영의 논거는 우선 산토스 대통령이 국가를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에게 넘긴다는 점과 그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비제도화의 길로 빠지게 될 것이란 점이였다. 보수주의자인 안드레스 파스트라나(Andrés Pastrana) 전 대통령은 심지어 평화 협정은 쿠데타를 표상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우리베 전 대통령은 민주중도당의 한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의 우려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자신들의 정치적 아젠다로 채택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 아젠다가 불행하게도 아바나에서 체결된 평화 협정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마르크스-레닌주의로 시작하여 카스트로-차베스주의로 종결을 짓고 있다.¹⁸⁾

16) Declaración de De la Calle, 6/8/2016.

17)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의 2016년 7월 4일 종교의 자유일 제정 법안 서명 연설.

18) 2016년 9월 2일자 민주중도당 언론 성명.

『트위터 상에서 국민 투표를 둘러싼 격렬한 전쟁(Intensa ‘guerra’ por el plebiscito en Twitter)』이란 연구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내에서의 논쟁이 얼마나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30일 간 트위터에 올라온 국민 투표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었다.

우리베 전 대통령이 국민 투표에서의 반대를 지지하는 트윗을 57개 올린 반면 산토스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는 자신의 계정에 단지 6개의 트윗을 올렸을 뿐이다. 한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총사령관 또한 트위터에 단 하나의 메시지도 올리지 않았다. 이것은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이 평화 협정 비준에 대한 국민 투표를 대비한 선거 운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¹⁹⁾

우리베 전 대통령이 올린 트윗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은 정부와 평화 협정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한 트윗 중 하나인 2016년 9월 7일자 트윗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은 평화 협정 비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21세기 사회주의를 콜롬비아에 도입하기 위해 정부와 무장혁명군이 체결한 협정입니다.” 그리고 이 트윗은 1796회 다시 트윗이 되었고 1576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2016년 9월 18일 우리베 전 대통령은 산토스 대통령의 배신을 언급하는 트윗을 올렸다. “우리에게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산토스 대통령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콜롬비아를 지키기 위해 평화 협정 반대에 투표합시다!” 이 트윗은 1752회 다시 트윗 되었고 1190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19) Fabio Posada, “Intensa ‘guerra’ por el plebiscito en Twitter” en *Colombia Check*, 29/9/2016.

사면 문제와 세금 인상 문제 역시 트위터에서 다루어졌다. 2016년 8월 23일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에서 우리베 전 대통령은 “사면에 대한 최종 협정과 맞서기 위해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또한 우리는 국민 투표 이후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려 한다는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통계 분석은 평화 협정 비준 반대 진영의 담론들이 두려움과 전쟁 그리고 공산주의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 진영을 이끈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들은 “전쟁”, “테러리즘”, “사면”, “대량 학살”, “마약”, “흉악함”, “폭력”, “차베스주의”, “베네수엘라”, “인간성의 훼손”과 같은 것들이었다. 전쟁이라는 주제에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과, 이에 따라 콜롬비아가 “새로운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의 담론이 부가되었다.

그런데 두려움의 담론은 더욱 진실성이 결여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산토스 대통령이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를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삼년 반 동안 장관을 역임하였던 현 산토스 대통령은 제가 집권했던 시기에 라틴아메리카에서 독재에 대항하는 가장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는 인물로 등장하였습니다. 저의 좌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산토스 대통령이 오늘날 가장 강력한 독재의 친구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독재가 붕괴되는 모습을 목도하면서도 독재의 길을 걸어가려는 콜롬비아가 경험할 위험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²⁰⁾

20) Prensa CD, 13/7/2016.

여러 연설을 통하여 산토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와의 외교 관계 재개를 위해 2010년 8월 10일 개최되었던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의 산타 마리아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교류가 있었는지 밝힌 바 있다.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산토스 대통령은 산타 마리아에서 자신이 차베스 대통령에게 한 말을 상기하였다.

차베스 대통령님. 대통령님과 저는 서로 사생결단을 내자고 말했고 우리는 적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제가 생각한 것, 믿는 것을 믿지 않고 저도 대통령님께서 생각한 것, 믿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결단코 볼리바리안 혁명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결단코 저와 같은 자유 민주주의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베네수엘라 국민과 콜롬비아 국민들을 위해 공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평화의 정착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간의 관계를 180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정상화 이후 동일한 일이 에콰도르와도 있었습니다.²¹⁾

산토스 대통령에게 있어 이 대화는 또 다른 좌파 정부들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문을 열어 주었다.

21) 2016년 9월 15일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의 평화 구축에 대한 지인들과의 사적 대화.

두려움의 논거: 카스트로-차베스주의로부터 경제 모델의 변화까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유포된 평화 협정 비준 반대 진영의 논거는 정의, 마약 혹은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의 정치 참여 등 협상 과정에서 합의 도출이 가장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 가짜 뉴스를 섞어 놓았고 이것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많은 가짜 뉴스들 중 대표적인 것이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 게릴라들이 조직 해체 후에는 매달 1,600,000 페소(약 56만원)를 정부로부터 받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현 연금 수급자들은 평화 비용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거나 협정문 안에 “성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가짜 뉴스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듯이, 텍스트 통계 분석에 따르면, “성 이데올로기” 개념은 297쪽에 이르는 평화 협정문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실제 협정문에서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총 111 차례에 걸쳐 협정문에 나온 “성”(Género)이란 단어는 상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넓은 시각에서 볼 때 이 단어는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 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뿐만 아니라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 간의 대립 기간 동안 피해를 본 모든 희생자들에 대한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평화 협정은 모든 종류의 차별 행위를 제거하고 여성을 정치적 주체로서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였다.²²⁾

평화 협정 비준 찬성 진영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끊임없이 반복 출현하는 거짓 정보들을 부인해야만 했다. 이것들은 찬성표를 결정적으로 깎아 먹고 있었다. 콜롬비아 정부가 평화 협정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지만 평화 협정 반대가 국민 투표에서 승리한 결과는 찬성 진영의 선거

22) M.F. González, “¿Por qué se confunde ideología de género con equidad de género?” en *El Tiempo*, 11/11/2016.

운동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한 인터뷰에서 협상에 참가했던 데 라 카예는 몇몇 주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 과정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가짜 뉴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카스트로-차베스주의에 대한 가짜 뉴스는 나에게서는 농담처럼 보였다. 산토스 대통령과 나를 카스트로-차베스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황당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이 단어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다. 하지만 바로 이런 연유로 인해 크게 국민에 회자되었다. 이후 나는 이 단어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유포 되는 것을 보았다. 반복을 통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슬로건들이었다.²³⁾

앞에서 언급한 연구는 우리에게 트위터 상에서 콜롬비아 정부의 행동이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벌어진 논쟁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체크(ColombiaChek: <https://colombiacheck.com>)에서는 “대통령은 우리가 팔로우를 하면서 지켜본 30일 동안 6번 국민 투표에 관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²⁴⁾라고 언급되어 있다. 정부가 올린 메시지들은 감성보다는 이성애 호소하였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올린 트윗 중 많이 유포된 한 트윗은 국민 투표에 대한 질문과 관계가 있었다. 2016년 8월 30일 산토스 대통령은 “국민 투표 실시를 위한 행정 문서에 서명을 하면서 우리는 평화에 보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국민 투표에서의 질문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그리고 여기에 “귀하께서는 갈등의 종식과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평화의 구축을 위한 최종 협정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덧붙였다. 이 트윗은

23) En J.G. Vázquez, ob. cit.

24) F. Posada, ob. cit.

1,083번 리트윗 되었으며 1,517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그러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이 메시지가 비록 상당히 많이 유포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메시지 교환은 국민 투표의 질문에 대한 근본적 분석이라기보다는 “모욕과 비웃음”의 축적이었다.

논거와 속임수...

흉악 범죄를 저지른 최고 책임자들의 수감, 마약 밀매를 통해 획득한 자금 및 무기의 양도와 같은 국민 투표를 둘러싼 최고의 이슈들은 평화 협정 비준 반대 진영이 지속적으로 이용한 논거가 되었다. 평화 협정에서 입안된 주제들은 정의와 평화 사이의 균형,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세부 아젠다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풀기 어려운 방정식이 되었다. 양측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에는 종합적인 농촌 개혁, 정치 참여, 무기의 양도 및 게릴라들의 사회 복귀, 마약, 희생자, 정의 등에 대한 주제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협상의 틀 안에서 “과도기적 정의”가 탄생했다. 이것은 흉악범죄에 대한 대안적 형벌을 허용하는 정의의 모델로, 로마 조약과 같은 국제 조약들을 따라서 설립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토스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 최고 지도자들에게 60년 형을 언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제재는 반드시 있을 것이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은 필히 받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국제 사회로부터 용인될 것입니다.”²⁵⁾ 이 민감한 질문들과 관련하여 정부는 “불완전한 평화”에 대해 말하였다. 데 라 카예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25) Palabras del presidente Juan Manuel Santos en el conversatorio “El sector privado de cara a la construcción de paz”, 15/9/2016.

우리는 징역에 대한 논의가 현실성이 없다는 점에 양보하였다. 이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과도기적 정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면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들 외에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인 제재였다. 그러나 콜롬비아 무장혁명군도 마찬가지로 양보를 하였다. 이들의 초기 입장은 총체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면이었다. 하지만 결국 국제 범죄, 가장 심각한 수준의 범죄들은 사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하였다.²⁶⁾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게릴라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는 재판에 있어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을 따를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들 게릴라들에게 적용될 형벌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건적이고 복원적”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희생자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게릴라들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진실을 통해 희생자들에게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인사들의 정치 참여는 가장 큰 논쟁을 야기하였다. 데라 카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이들의 정치 참여 문제는 여론의 거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의 정치 참여 문제다. 나는 우리 콜롬비아 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숙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쿠바에서의 협상 테이블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평화 협정의 근원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무력 사용을 종식시키고 정치 참여의 문을 여는 것이다.”

평화 협정 비준 반대 진영의 논거들은 매우 다양하였다. 전직 검사인 알레한드로 오르도네스(Alejandro Ordóñez)는 이 협정은 “콜롬비아의 중산층을 붕괴시키기 위해 집권층과 범죄자들이라는 두 엘리트 계급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

26) J.G. Vázquez: ob. cit.

장하였다. 그리고 “현 정권은 무장혁명군이 요구한 모든 조건 사항들을 수용하였다. 그들에게 불처벌권, 지도자들을 정부에 인도하지 않을 특권, 재산에 대한 보호, 헌법이 규정하는 권리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토지가 있는 지역에 대한 통치권까지 약속하였다.”²⁷⁾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에 대한 불처벌권에 관해 민주중도당의 이반 두케(Ivan Duque) 상원의원은 테러를 자행한 이유로 정치 참여가 배제된 스페인의 바스크 무장 독립단체인 ETA(Euskadi Ta Askatasuna) 소속 요원들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한편 우리베 전 대통령은 스페인을 순방 중에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저는 모든 스페인 군 관계자분들께 다음 문제에 대해 숙고해 보시길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 스페인에서는 결코 ETA에 대한 불처벌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콜롬비아에서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에 대한 불처벌권을 수용해야 합니까?²⁸⁾

무장혁명군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대해서 우리베 전 대통령은 “정부에 무기를 양도하고 무장해제를 한 집단은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무기를 살 것이며 또한 국민 투표에 승리하기 위해 표를 살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협정을 옹호하던 콜롬비아 정부는 ‘평화를 위한 사법재판소에서 게릴라들이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재정적 원천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알리기만 하였다. 평화 협정 서명 이후 검찰 총장은 무장혁명군 게릴라

27) Goyo G. Maestro, “Alejandro Ordóñez: ‘No hay que cantar victoria, las FARC aún pueden volver a atentar’” en *La Razón*, 23/6/2016.

28) “Uribe: Los referentes de Podemos son tiranos destructivos, protejan la democracia en España. Entrevista a Álvaro Uribe” en *OkDiario*, 8/7/2016.

들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자금을 대한 모든 정보를 당국에 넘기도록 하였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일반법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될 것이며 평화 협정에서 보장하는 모든 권한을 박탈하겠다고 공표하였다. 무장혁명군 게릴라들의 정착 문제의 어려움, ‘평화를 위한 사법재판소가 당면한 커다란 도전들, 무장혁명군 측의 무기 반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점 혹은 무장혁명군 측이 신속하게 불법 자금을 정부에 양도한 사실 등은 산토스 대통령이 추구하는 평화가 매우 복잡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논거의 내용은 차치하고 분명한 사실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평화 협정 반대 진영이 보여준 논리의 단순성이 정부 관료들의 복잡한 설명보다는 일반 대중에게 보다 쉽게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틀에서 “국가를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에게 넘긴다” “21세기 사회주의의 위험성” 그리고 “성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평화 협정 반대 진영의 논거들은 찬성 진영의 노력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왜냐하면 찬성 진영의 노력은 단순한 논리보다는 복잡한 논리로 구성되었기 때문이었다. 평화 자체에 대한 주제는 산토스 대통령과 우리베주의 간의 논쟁처럼 보다 긴급한 정치적 문제들과 뒤섞여 버렸고, 평화 협정 비준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 모두 광범위하게 이용했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그 양면성을 보여주었다.

정동희 옮김